월/요/광/장

박상호

신입생 대학생활과 자녀사랑

3월의 대학가는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며 꿈틀거리는 대지와도 같다. 풋풋한 자유가 일렁거리는 대학가의 풍경은 신입생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고등학생들의 대입 준비과정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피가 끓는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 턱밑까지 찬 숨을 몰아쉬며 오르고자 한 산의 정상에 섰을 때 밀려오는 것은 성취감과 해방감이다. 3년간 눌려져 있던 용수철이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힘차게 튀어 오르는 반동의 힘과도 같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서 최대 관심은 자유로운 시간사용에 대한 기대와 부모의 통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성인의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입생들의 생각과 몸은 분주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생활에서 경계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나 학부모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 신입생들은 몸은 어른이나 아직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외국의 청소년의 경우 학교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대학생이 되어버린다. 지적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으로 인하여 감성능력이나 사회성능력, 도덕성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형적인 인격의 성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예기치 않는 일탈의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필자는 매년 신입생들에게 20대의 하루를 50대의 열흘과 바꿀 수 없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한다. 무엇이든지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어떤 것이든 배울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황금같이 여겨야 할 때인 것이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방종에 이를 정도의 자유를 누리려는 생각에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대학생활은 자기 스스로 사용하는 시간이 많다. 1년에 등교하는 날은 30주로 최고 150일이다.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600시간이고 하루 8시간 수업할 경우로 계산하면 75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확실한 비전을 가진 학생의 대학생활은 대입준비 시절보다 시간이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인격형성과 경쟁력 있는 실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공 외에 자율적으로 습득해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공외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영어이다. 영어활용 능력은 미래 자기 활동범위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쟁력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는 인터넷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의 넘쳐나는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학습영역이다. 그리고 교양서적, 문학서적, 전공과 인접한 전문서적 탐독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체험과 여행이다.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은 사고의 폭을 넓혀주며 다양한 문화와 경제의 현상들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봉사활동과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절대자 앞에서 자기실존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학생활을 보내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대학 신입생은 이제 막 비닐하우스의 모종 밭에서 들판에 심겨진 여린 묘목과도 같다. 따라서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하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제 한시름을 놓는 시기가 아니다.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생활은 대학도 사회도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생활이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는 대학 2학년까지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녀가 책임성 있는 자유를 누리며, 자기 동기부여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비전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와주어야 한다. 대학생활이 인생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조선대 미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농협개혁, 진정한 '농민 위한 조직' 계기돼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은 내년 3월 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새 체제로 탈바꿈한다. 18년간 끌어온 농협개혁이 마무리된 셈이다.

농협법 개정은 본연의 기능인 농산물 유통과 판매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취급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금융사업에 치중했던 농협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현재 농협은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직원 1만8000명 중 판매·유통 분야는 겨우 4000명에 불과하고 신용부문이 1만3000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는 전문성도 떨어진다. 농협이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이익과 권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유다.

따라서 농협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자본금의 30%를 무조건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경제사업은 회원과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최소한의 자본 확충은 이뤄졌다.

하지만, 지속적인 내부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가야 한다. 자본 확충만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신용사업의 분리로 높은 수익률만을 좇을 경우 사업부문의 분리가 일부 농민단체의 우려대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도 경제사업을 위한 예산·조세 등 각종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농협은 앞으로 1년간 개편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진정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경찰청 홈페이지까지 침투한 유해광고물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해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성인사이트 및 온라인 도박광고가 단속기관인 경찰 홈페이지까지 잠식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일 광주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6개의 유해사이트 광고가 하루종일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실시간 화상 채팅', '무료 캠걸 감상 가능', '무료 성인화상'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안내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 주민등록번호나 '공공 아이핀'을 입력시킨 후에 게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홈페이지 안전망이 뚫려 유해광고가 게시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아이피 주소를 토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추적을 의뢰했으나 필리핀과 중국으로 설정돼 있어 게시자 검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과 기업체의 홈페이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회사의 자유게시판은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신규 포커 사이트', '성인 정보', '성인 맞고' 등의 게시물 50건이 3페이지에 걸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홈페이지 관리자들은 유해광고 게시에 대해 아이피 주소 추적과 홈페이지 방화벽 설정 등 여러 방면으로 막아 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게시자를 바꾸거나 외국 IP를 이용해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세상의 그늘에 음란·유해 정보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인터넷 유해 정보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정당국 역시 사이버 유해 광고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한 처벌로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조의연

법정에서의 약속

20년도 훨씬 더 지난 3월 어느 날, 대학 1학년 법학개론 시간에 들은 낯선 말이 있다. "Pacta sund servanda", "약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라틴어 법언(法諺)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도덕률이자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를 다루는 계약법의 기초인데, 우리나라에는 "천냥 빚도 말 한 마디면 갚는다"는 다소 동떨어진 속담이 있으니 우리는 민법전에 없는 예외 조항을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들어 우리 국민성에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면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난히 '말의 포장' 내지 '수사(修辭, rhetoric)'를 중시하는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서류보다는 말로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 종종 '진실 게임' 성격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송사인 민사재판에서는 물론,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에서도 당사자(피고인)로부터 이런저런 약속의 말과 글을 많이 접하게 된다.

피고인이 써내는 탄원서, 반성문 등의 서류를 보면 '다시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분히 공약(空約)성의 수사는 기본이고, '이번에 선처해주시면 돈은 (나가서) 반드시 갚겠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때로는 '조건부'의 약속을 하기도 한다.

약속의 상대방이 법원(재판부)인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다짐을 넘어 누군가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논의되는 형법개정안에는 피해회복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신설한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와 이른바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었고, 재판실무에서도 합의 즉 피해회복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삼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합의와 관련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돈이 없어 합의를 못하여 중한 형을 받는 경우, 돈을 갚겠다는 약속만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낸 다음 판결 선고 후에 지키지 않는 경우(속칭 '외상합의'), 오히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일면을 지닌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대 민법전을 편찬한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피고인이 한 약속이 법관의 '오판'의 단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니 많은 피고인들이 나폴레옹의 역설적인 명언을 되새겨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약속의 향연이 펼쳐질 형사법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고

이경환

F1대회 지속가능을 응원하자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라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역 재생의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주민의 무한한 응원, 자동차관련 산업체, 그리고 정부가 과연 화끈하게 밀어줄 것인가?

거듭된 물음을 던지면서 수년간 팔짱만 낀 채 무덤덤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때론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했고, 관광부문에 기여할 거친 대안도 제시할 때도 있었다.

필자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현재 관광학박사로 중앙, 지방에서 관광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F1대회에 대한 제한된 관심으로 자동차경주대회를 많이 접하지 못했고 해외 출장에서 두 번의 대회장 경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역과 행정의 자발적 참여, 자동차 마니아의 열혈 참여 그리고 지역 활성화의 온도를 제법 느꼈다.

특히 개최지역과 국가는 기본적으로 역동적인 레저 마인드와 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 기업, 마니아 그리고 정부가 긍정의 힘으로 대회를 공감하며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마침내 F1대회가 지역과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을 이뤘지만 2011 F1대회의 지속가능성 우려, 지역 재생의 에너지로의 역할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미래 가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화끈하게 부정의 아우성과 긍정의 응원을 조합시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지난해 첫 대회는 서킷 완공이 늦어지는 등 행사장의 일부 시설과 지역 인프라는 남도의 자존심에 잠시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와 비협조를 넘어서 '첫 술의 배가 조금은 찬 대회'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솔직 담백하게 말하자면 민망한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도 있었고 사업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문제를 시작으로 수용태세의 한계, 이원화된 대회 운영 관리 체계, 느슨한 전문가 풀 활용 구축 및 대회 홍보, 자동차대회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 미숙 등 숱한 난점은 아프지만, 이제 '첫 술의 대회'를 통해 명약을 찾고 아픈 상처를 치료하면서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접한 내용을 존평하고 필자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초창기부터 거칠게 논의된 사업성을 시작으로 대회 성과 논의의 조급함, 과도한 사업비 문제, 추진주체의 문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참여적 지원 문제, 추진주체의 자립적 사업 전략 부재 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수천억을 들여 시작한 이 사업에 대해 책임 있고 절절한 고민과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내야 한다.

F1대회라는 생경 그 자체의 국제대회를 독학하고, 스폰서도 변변히 구하지 못하고, 주변의 삐딱한 관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수년간 고단히 추진해왔던 국제대회의 결과라면 이번 한번은 응원의 박수를 쳐야 할 것 같다. 당장 돈이 안 된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고함치지만, 총총히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자. 그러면 다음 F1 대회는 배가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주)미소미투어컨설팅 대표〉

無等鼓

명품 선호

새 학기를 맞아 유통가에서는 고가의 학용품과 아동복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10만~20만 원대 학생 가방은 물론이고 수십만 원대 고급 필기구와 아동복 제품들도 인기다. 이를 놓칠세라 유명 브랜드들은 아이돌 스타를 내세워 학생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명품'을 모아놓은 편집매장을 운영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살인 물가' 속에서 학부모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명 브랜드의 의류나 가방, 신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탓이다. 비주류가 되기 싫은 아이들은 '메이커'를 고집하며 성화를 부린다. 부모들도 혹여 내 아이가 기가 죽거나 '왕따'를 당할까봐 한두 가지는 눈 찔끔 감고 사주는 분위기다.

'명품 선호'는 어찌 보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소비의 한 형태다. 미국의 경제학자 라이벤슈타인이 간파한 밴드왜건효과(band-wagon effect)다. 서커스단의 선두에서서 행렬을 끌고 가는 선도차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이들처럼 다른 사람의 소비행태에 동행하거나 편승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상류층이나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명품에 대한 집착이 어느새 일반인은 물론 10대들에까지 미치게 된 것은 어른들이 심어준 환상 때문이다. 물품으로라도 자신을 과대포장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거나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하는 성향, 즉 과시욕과 허영심이 주범이다.

유통가에선 '명품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속설도 나돈다.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베블런효과(veblen effect)다.

반면 명품 대중화에 반기를 들고 차별화한 디자인을 즐기는 노노스(No Logo No Design)족들도 있다.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어른들부터 몰개성(沒個性)의 소비행태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정후식 정경부장 who@

아이들 수저집 세균 많아 가정에서 소독 자주해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 가끔 급식 도우미를 하기 위해 학교에 가곤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보통 천이나 비닐로 만들어진 수저집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서 가지고 다녔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이 수저집이 식중독균을 키우는 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소비자보호원이 초등학생들이 쓰는 천이나 비닐 소재의 수저집을 조사했더니 30여개 가운데 9개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한다. 또 23개의 수저집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돼 매우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가정집에서 수저집을 세척한다고 하더라도 세균이 제거되지 않는데 있다. 때문에 아이들이 이 같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경우 식중독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소독된 숟가락, 젓가락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수저집을 가급적 자주 소독해 우리 자녀들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겠다. ▲이다운·광주시 남구 칠석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